

푸드마켓 운영 '숨통', 그러나...

정기후원기관 · 업체 부족 · 도민사회 관심 절실

기부물품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난에 허덕이던 푸드마켓에 10월에도 '기부천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사랑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는 어려움에 처한 푸드마켓의 실정을 전해 듣고 1년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푸드마켓은 이 돈으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 별도로 설치한 '경마본부' 부스를 통해 이달부터 이용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김만덕 나눔쌀 만점 쌀기'에서 모은 20kg 쌀 300포를, 제주은행 시정점에서는 직원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전국푸드뱅크에서도 국수 5000개를 후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매월 생수와 감귤주스를 기탁하고 있으며, (주)금강축산유통은 육류를, 제주종합식품은 채소류를, 명도암관광휴양목장은 유기농채소류 등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제주이어도자활센터(모다드립)와 한아름정육마트, 서문식품은 각각 채소류와 육류, 두부를 선뜻 내왔다.



△김만덕기념사업회는 10월 22일 제주항에서 '김만덕 나눔 쌀 만점 쌀기'를 통해 모은 쌀 중 733섬을 제주지역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 위> 전국푸드뱅크에서 후원한 국수를 자원봉사자가 푸드마켓으로 옮기고 있다.

개인들의 참여도 지속되고 있다. 현민철씨는 10kg 쌀 50포를, 김창섭씨는 20kg 쌀 10포와 삼다수감귤주스 1상자를, 고용범씨는 검은콩 두유 2상자와 김 1상자를, 우선자씨는 세탁제 9개를 푸드마켓에 보냈다.

이처럼 푸드마켓에 온정이 이어지면서 푸드마켓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푸드마켓에 정기

적으로 후원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부족해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언제 다시 운영난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푸드마켓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월 1회 푸드마켓에서 3가지 물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이웃”

국제결혼 증가...4월 현재 결혼이민자 1444명

남편 · 어린이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절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10년전인 1999년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1%에 달했다. 10년 새 국제결혼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것이다.

제주에서도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7년 979명에서 지난해 1201명, 올해 4월말 현재 144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86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60명, 필리핀 183명, 일본 72명, 미국 17명, 태국 12명, 몽골 9명, 러시아 6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4년마다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다문화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가족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엄마들이 대부분 맡고 있어 외부활동이 쉽지만은 않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

연도	총 결혼수	국제결혼 건수	구성비(%)
1999	362,673	10,570	2.9
2000	334,030	12,319	3.7
2001	320,063	15,234	4.8
2002	306,573	15,913	5.2
2003	304,932	25,658	8.4
2004	310,944	35,447	11.4
2005	316,375	43,121	13.6
2006	332,752	39,690	11.9
2007	345,592	38,491	11.1
2008	327,715	36,204	11.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명)

국적/연도	2007	2008	2009(4월말 현재)
중국	448	606	686
베트남	207	207	360
필리핀	99	113	183
일본	81	75	72
미국	18	19	17
태국			12
몽골			9
러시아	5	9	6
기타	121	172	99
계	979	1,201	1,444

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족, 특히 남편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2면에서 계속

지면소개

- 종합 2 · 3면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시설 탐방-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 · 5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체육대회 · 소수마당
기독교사회복지회 자원봉사자교육
- 오피니언 6면
킬링 · 시론 · 기고
- 특집 7면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연구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감귤과 유채꽃 등 최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한국전통의 맛을 재현해낸 돌궂감귤정과

200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공모대전 금상 수상
제12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제품가격

7,000원 / 10,000원 / 20,000원

어머니의 마음과 정성으로 제주감귤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아 드시는 분의 품격과 마음까지 배려한 돌궂 감귤정과는 귀한 손님의 선물, 접대와 다용도로 최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준강** Tel. 064-702-7851

- 구입문의 : (복)춘강 Tel. 064-702-7851~2
- 판매처 :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특산물전시판매장 등
- 판매개시 : 2009년 11월 16일 ■ 용도 : 개인 · 단체선물용, 명절선물용

장애인의무교육유치원·고교로 확대

교과부, 장애 중증화 조기 예방 등 기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

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교과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등학교 266개)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

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사회 적응 및 진출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2만원 ↑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12만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 수준)을 혼자 사는 노인은 70만원, 노인 부부는 112만원으로 10월 23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68만원(노인 부부 108만8000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금액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63만명보다 12만명 증가한 375만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는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다.



16년째 ‘사랑의 수의’ 전달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제주시새마을부녀회(회장 문정복)는 10월 20일 제주퍼시픽 호텔에서 강택상 제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 27명에게 ‘사랑의 수의’를 전달했다.

수의전달식에 이어 희망지에 한해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하고, 점심식사와 함께 민요공연이 이어져 훈훈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새마을부녀회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323명(1억 2400만원 상당)의 노인에 수의를 전달했으며, 경비는 제주시새마을알뜰매장 운영, 헌옷 모으기 사업, 향토음식점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며 올레꾼들에게 설촌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어르신과 함께 올레길 걸어요”

‘시니어 길동무’ 올레꾼에 호평

마을 어르신들이 올레길을 찾는 올레꾼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에 올레코스 개장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니어 길동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올레 코스별 마을 어르신 50명이 참여해 마을별 설촌(設村) 유래와 지역특성을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어르신들은 마을의 문화해설사 역할 뿐만 아니라 숙소, 여행경로 및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관광객들의 든든한 안내자로, 혼자 올레길을 찾는 분들에게는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를 상징하는 굴색복장에 친절함을 더해 올레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당초 어르신들에게 일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10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어르신 대부분은 자청해 마을 홍보를 위해 연말까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자료를 모아 내년에는 스토리텔링집을 만들 계획이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증가…인증을 55.3%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지난해 154곳에서 올해 10월 현재 258곳으로, 104곳이 추가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율은 전국 45.9%보다 다소 높은 55.3%이다.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 수준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제도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육현장의 의지와 보육교사들의 전문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다.

제주도는 현재 87곳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올 연말에는 인증시설이 3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지표는 ▲보육환경 ▲보

육과정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으로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7개 영역, 39인 이하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평가인증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등 4단계에 걸쳐 6~7개월 소요된다.

제주도는 평가인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인증시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설 규모별로 지원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인증서 및 인증현관 제작 지원, 각종 포상시 평가인증 시설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다.



제주시민과 함께 한 사회복지 열린마당

제주시탐동 해변공연장서 24일 열려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고경운)가 10월 24일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제주시민과 함께 하는 2009 사회복지 열린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제주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분과별 사업을 홍보하는 알림마당,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고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은 제안마당,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등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벤트를 벌인 어울마당 등이 풍성하게 진행됐다.

또 제주YMCA 청소년그룹사운드의 노래와 연주, 연동지역아동센터의 부채춤, 흥익아동복지센터 에버그린 중창단의 요들송, 영락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무대공연을 선보였으며, 체험도구를 이용한 장애·노인체험, 김장담그기 체험 등이 마련됐다.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주시 지역 사회복지자원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사회복지 인식을 높이는 한편 참여와 나눔의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1면에서 계속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교육은 물론 어릴 적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피부색이 달라 ‘왕따’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다문화가정센터 김정립 팀장은 “우리 센터에서 어린이 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거부감 없이 긍정적인 생각이 싹틀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국제결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않아 ‘이방인’으로 받는 설움이 많다”면서 “결혼이민자들도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편견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940,000	94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400,000	400,000
복지사업후원	1,875,000	557,68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2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 희망을 디자인하다

가을 단풍이 햇살 가득 머금은 10월의 오후, 개관 20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한)을 찾았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자'를 모토로 출발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도의 전인재활센터로서, 지역조직센터로서, 조사·연구 및 교육센터로서,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장애인 치료·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식개선 등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까지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과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을 위한 제반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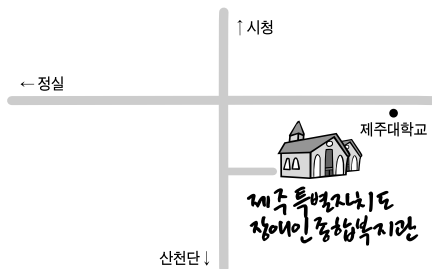
“직원 모두 미래지향적 자세로 전진”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지원협의회 사업이다. 1990년대 후반 한림읍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구성돼 장애인인식개선캠페인 등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지난해 2월 19개 지역을 통합,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장애인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인 장애인지원협의회는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문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해결,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신규 지역 발굴에 주력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의 꽃이라고 불리는 '직업재활' 사업은 복지관 개관 초기 한복과 목공예 등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시대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지금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재활사업은 단순히 장애인의 취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연장에 있어서 어려운 집이나 동료 직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연평균 100여명이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각 영역의 전문치료사로 구성돼 장애아동의 의료적·심리적 재활 도모를 위한 언어치료, 심리치료, 심리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치료교육' 사업은 취학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생애 주기별 전환교육 프로그램 등의 많은 개발 작업들이 시도될 예정이다.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관 또한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성인 장애인의 여가나 레저, 스포츠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탐색작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인형극동아리, 문화동아리, 영상기자



단 등의 부문에서 성인 장애인들의 자체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부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윤보철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의 불모지였던 제주에서 전문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재활, 교육 어느 한 분야를 고집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조사해 사업을 추진한 적극적인 자세에 기인한다”며 “복지관 직원 모두가 현재의 장애인복지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능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국민연금+직역연금’ 20년 넘으면 연금 수령

연금사각지대 해소·노동시장 유연성 향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 이동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직역 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과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와 계약직 교원,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된다.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직업을 이동한 사람은 약 12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에 8년을, 공무원연금에 12년을 가입했을 경우, 법 시행 이전에는 어느 한쪽에 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을,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일시금을 받았으나, 지금은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을 수 있다.

또 연계연금을 받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다.

한편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있다.

빛누리실버연극단 ‘마지막 선물’ 성황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 소속 ‘2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이 10월 19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을 선보였다.

도내 60대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빛누리실버연극단은 노인학대와 가족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그린 연극 ‘마지막 선물’(극본/연출 변중수)을 통해 관객들에게 노인학대예방과 가족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늦은 나이에 ‘연극’이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실버연기자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와 응원을 보냈다.



이번 공연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제주폴리텍대학·서귀포시시니어클럽·서귀포시독거노인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 후원으로 마련됐다.

2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문의=757-3400, 3403.

시니어클럽 ‘찾아가는 인형극’ 진행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 은빛인형극단은 지역사회의 문화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은빛인형극단은 지난 5월 중앙유치원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보센터와 제주시 보건소 주간보호센터 등 56곳에서 1950명을 대상으



로 공연을 벌였다.

은빛인형극단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주제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745-3999.



시각장애인-비장애인 '손에 손잡고'

시각장애인복지관 '2009 이용자 체육대회' 개최

상쾌한 바람이 불고 산과 들이 오색으로 물드는 가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아주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10월 21일 시각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과 복지관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제주시 선홍운동장에서 '2009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체육대회'를 개최, 그동안 집안이나 실내의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왔던 시각장애인들에게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시각장애인복지관 관훈인 '밝은 미소로 하나되는 마음'을 인용한 밝은 팀, 미소팀, 하나팀, 마음팀 등 4개팀으로 나누어 플리잉디스크, 줄다리기, 빨리 걷기, 풍선탑 쌓기, 공 던지기 등 다양한 게임과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특히 시각장애인들과 자원봉사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웃고 떠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한명선(시각장애 1급)씨는 "평소 병원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외출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야외에 나와 따사로운 햇살을 맞아 기분이 너무 상쾌하다"며 "이런 야외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일남(시각장애 1급)씨는 "게임을 통해 서로가 푹푹 뭉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고 특히 야외에서 구워먹는 고기의 맛이 일품이었다"며 밝게 웃었다.

자원봉사자 김창남(밝은세상봉사단 회장)씨는 "지금까지는 봉사 차원에서만 시각장애인들과 접촉했었는데, 오늘은 동반자로 함께 협력하며 체육대회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뤄 플리잉디스크 경기를 하고 있다.

에 참여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이번 체육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시각장애인복지관 김형균 사회복지사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동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모두가 하

나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마주잡고 화합하며 단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한편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정성껏 마련한 경품들이 시각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돼 체육대회의 흥을 한층 더 돋웠다.

〈양정선 명예기자〉



제주애덕의집 '체험홈 운영'

제주애덕의집은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와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10월 1일 체험홈 입주식을 시작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체험홈은 생활장애인 4명과 지원교사 1명이 일반가정과 같은 원내의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장애인들의 생활활동, 여가활동, 경제활동,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교류 등의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공동생활가정 입주의 기초를 마련한다.



아가의집 생활인 한라산등반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10월 9일 입소 생활인들의 장애 극복 의지를 높이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생활인들의 체력과 능력별로 그룹을 나눠 한 국마사회목장사업처 직원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실시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장터

평안전문요양원(원장 고치환)은 10월 21일 노인성질환 어르신 잔존능력 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장터를 열었다.

제남아동복지센터 난방공사

제남아동복지센터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성금으로 제주 사랑의 열매가 지원하는 '2009 취약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선정돼 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제남아동복지센터는 지원금으로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 난방이 전혀 되지 않던 교육실에 배관공사를 10월 12일 마무리했다.

소/식/마/당

송죽원의색다른가을소풍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10월 15~16일 선인별장에서 장애인, 부모, 지도교사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색다른 2009년 가을소풍을 실시했다.

펜션을 빌려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한 송죽원은 가을의 자연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산굼부리의 정취를 감상하고 삼림욕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노인복지회관 건강관리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복)은 10월 8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경로당에서 시청각건강관리교육을 실시했다. 노년기 질환관리와 예방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DVD와 대형스크린 등 시청각교육장비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 어르신들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흥미있게 교육에 참여했다.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 40명은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원장 오경생)에서 시행하는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일정 중 제주정신요양원(원장 전내영)과 제주시립회맹원(원장 박정해)을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정신장애인과 부랑인·노숙인을 위해 실내의 환경정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집, 야외가든파티 열어



성심원 사랑의집(원장 김호성)은 10월 15일 자원봉사자와 운영위원 등을 초청, 즐거운 저녁식사와 노래자랑 등을 하며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야외가든파티를 열었다.

사랑의집은 앞으로 가든파티를 정기적으로 열어 행복과 나눔이 넘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라복지관, 지역사회지도자교육 실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10월 14일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임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지역사회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홍성철 교수가 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강연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허철훈 계장이 '주민생활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가롤로의집 생활인 소방체험교육



가롤로의집 생활인 20여명은 9월 15일 화북 119소방센터를 방문, 열린 소방서 프로그램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방차를 직접 타보고 소방차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어떻게 불을 끄는지 등 지적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자원봉사는 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봉사자교육

10월 17일 성가정노인복지센터(원장 강유순) 다목적실에서 자원봉사자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9년 자원봉사자교육이 실시됐다.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시설인 가톨릭의 집, 성가정노인복지센터, 일배움터, 제주애덕의 집 주관으로 열린 교육에서 윤석인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국내외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 발전의 역사와 세계적 추세에 대해 강의했다.

윤 소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동향이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만큼 자원봉사의 활용가치와 실천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봉사를 요구하고 활동영역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으로 ▲사회공동체 약화 방지 ▲시민교육·복지교육의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발생 및 대처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의 기여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청소년 및 아동에게 봉사정신 함양 등을 꼽았다.

윤 소장은 “이런 다양한 역할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봉사를 선택하고, 그 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 물질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활용기관이나 대상자의 비밀을 지키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직 안에서 민주적 운영, 이타정신 함양, 책임감, 지도력을 양성하고 함께 성장·발전하여 지역사회 민주적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소속돼 반창하는 공동체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자원봉사운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자원봉사자는 “막연하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이렇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인줄 처음 알았다”며 “진정한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활동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봉사에 임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소명 명예기자〉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한 프로그램 운영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지역 맞벌이·한부모·저소득가정 자녀 중 야간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복권기금 야간요보호 아동 통합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실업문제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보호아동의 방임 해결을 위해 실시된 이 사업은 건강한 성장과 학력신장, 특기적성, 정서안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전인적인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다.

구좌읍 상도리에 위치한 125전투경찰부대와 연계해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들에게 일대일 멘토링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소



리어울림 청년사업단 연계사업으로 플루트, 바이올린, 성악 등 다양한 악기교실로 음악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있다.

또 평대초등학교, 세화초등학교와 학교폭력예방네트워크 협약을 맺어 학교 안팎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사업 등 지역사회 아동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단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가족나들이, 목욕서비스, 여름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캠퍼스 속 나눔축제 ‘캠퍼스나눔도전’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제주대학교 축제인 ‘생각대로 아라대동제’에 참가해 ‘캠퍼스나눔도전’ 행사를 실시했다.

‘캠퍼스나눔도전’은 대학생들의 나눔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랑의 열매가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번에 실시한 ‘캠퍼스나눔도전’은 ‘나눔을 던져요’, ‘사랑의 열매 모델 도전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대학생들의 나눔 활동 참여와 기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지속적인 대학생 참여형 나눔프로그램을 통해 열정과 패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 리더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나눔 아이템과 함께 나눔 문화 전파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혜정원,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9월 28일에는 상패, 기념품, 도자기 컵, 천연비누 등이 중

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을 받았다.



제주도자원봉사센터 호스피스교육 수료식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10월 2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09 전문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심화과정(호스피스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전문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지향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제8회 제주시장애 장애인볼링대회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아)은 장애인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제8회 제주시장애 장애인볼링대회를 10월 15일 에이스볼링장에서 개최했다.

선수를 비롯한 장애인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시각·청각·지체·지적·정신·신장장애인부문으로 나뉘어 경기가 치러졌다. 입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됐다.

다음은 입상자명단

▲시각장애인부 △남성부 1위 신충열, 2위 최종은, 3위 김도연 ▲청각장애인부 △남성부 1위 박민수, 2위 강형권, 3위 김종호 △여성부 1위 윤미화,

2위 현인자, 3위 지미영 ▲지체장애인 휠체어부 △남성부 1위 임경윤, 2위 김익찬, 3위 박재석 △여성부 1위 김형여, 2위 임대진, 3위 김양숙 ▲지체장애인 입식부 △남성부 1위 최용호, 2위 이정훈, 3위 강보길 △여성부 1위 최미자, 2위 오영생, 3위 김양희 ▲지적장애인부 △남성부 1위 김철석, 2위 김경만, 3위 임희원 △여성부 1위 문혜선, 2위 김한아, 3위 김효정 ▲정신장애인부 △남성부 1위 김수민, 2위 정진호, 3위 고기영 △여성부 1위 홍애순, 2위 신명옥, 3위 홍은숙 ▲신장장애인부 △남성부 1위 정만호, 2위 김홍국, 3위 조동우 △여성부 1위 김진희, 2위 부애현, 3위 강인선



연말까지 다문화강사교육

제주다문화가정센터는 5개국 30여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자신의 나라 문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12월말까지 다문화강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도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방과후 교실, 공부방, 복지관 등지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유진재활센터 한라산정상등반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주·단기보호시설(원장 최은미)은 10월 11일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등산교실’을 통해 한라산 정상에 올라 장애극복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였다.

한라산 정상 등반에 앞서 유진재활센터 이용 장애인들은 오름 10회, 한라산 뒷세오름을 3회 등반했다.

칼럼

임이 그리운 사람들



김길용

수필가·시인

얼마 전부터 한 지인이 황새와 인근에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자녀들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딱한 처지다. 주위에서 그 부모 어떻게 하고 있을까하고 입을 모은다. 그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를까.

결혼적령기 넘긴 장애인 많아

큰 과수원을 하다 종내는 다 정리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몸을 던진 것. 혼자가 아니라 내외가 함께 뛰어들었다. 삶의 방식 자체를 급진화해버린 것이다.

작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테다. 살신성인이요, 이타행의 본보기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이다.

실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그 삼남매의 나이가 마흔 살 전후로 과년했음에도 혼인을 시켜주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다.

장애 정도가 그리 중증이 아니라고 한다. 결혼을 하기만 하면 나름으로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 갈 만하다는 얘기다.

또 있다. 연전,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몇 년 간 문학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대상이 주로 장애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글쓰기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다. 나중에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발족되면서 문학단체로 뿌리 내려 열심히 하고 있다. 보기에 참 흐뭇하다.

나는 그때 몇 사람을 중앙문단에 수필로 데뷔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의욕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과연 그들은 등단 이후에 수필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좋은 글을 쓰고 있다. 지금도 나는 그 일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한데 그들 중 한 젊은이가 마흔 살 노총각이다. 소아마비 장애인이고 말이 조금 어눌하다. 그러나 걸음이 파행이라 다소 불편한 것 말고는 소통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

문화적 감성이 풍부한데다 하고 싶던 글쓰기라선지 수필을 반듯하게 잘 쓴다. 몇 년 새 많은 작품을 썼으니 머잖아 개인 수필집을 상재하리라.

이따금 장가를 들어야 하는데 하고 농을 걸면 얼굴이 붉게 볼들곤 한다.

장애인 결혼상담코너 필요

그의 수필을 읽어 안 일이지만, 사귀다 헤어진 애인을 떠올렸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순수한 친구다. 그런 순수함이 수필을 쓰게 했을 것이다.

장애인들 가운데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어디 한둘일까. 짝을 만난 이들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올려주는 장애인연합회의 성의는 백 번 박수를 받을 일이다. 이야말로 인권 차원 아닌가.

이제,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결혼 상담 코너 같은 장치는 가능한 일이 아닐는지.

궁극통(窮則通)이라 했다. 장애인연합회의 이름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두드러면 문은 반드시 열린다.

시론

자원봉사 실적관리센터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실적관리 및 지원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적관리센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자원봉사 활성화 위해 제도적 뒷받침돼야

실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주는 역할은 매우 크다. 교육 및 상담을 비롯해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환경보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공명선거,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기여, 행정의 사무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새로운 자원봉사분야를 비롯해 다문화정책, 실버, 외국어 자원봉사 등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실적관리 및 지원제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갈수록 늘어나는 봉사활동의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이며 자유의지에 의해 행해지는 무급의 비의무적인 무료봉사활동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 등 정책개발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에게 최소 생계비 및 학비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 노인에게 유급 및 실비차원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 '봉사와 보상'의 개념으로 자원봉사자 실적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도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관리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봉사활동 인재 조사·발굴에서부터 개인의 능력·전공별 적재적소 배치,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이에 따른 지원제도 업무까지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부 관리체계로는 읍·면·동을 비롯해 복지시설 등에서도 자체관리를 통한 방안들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 실적관리와 보상관리를 위해서는 일정시간 봉사자에 자원봉사 인증제, 마일리지 등 실적 은행제도, 연말정산 혜택 등 새로운 지원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 더 나아가 보상관리 차원에서 지역 내 상가 가맹점 체계를 구축해 음식점이나 안경점, 이·미용시설은 물론 관광지 입장료,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교육 수강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주도민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든다면 자원봉사 실적관리는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 곳곳에는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 그런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차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무급의 봉사와 자발적 참여만을 기다리는 과거의 사고에 얽매어서도 안 된다.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기고

출산장려운동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김순자

성산읍사무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마스크를 통해 접하며 그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 부담이 커져 국가재정이 악화됨은 물론, 미래의 인력 창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악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보다도 낮은 1.19명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회현장에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각종 교육비 부담 증가와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출산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계와 경제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등과 힘을 합쳐 낙태방지, 육아시설 및 양육지원비 확대 등 출산 장려 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성산읍에서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출산 장려 가두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여 출산의 중요성을 읍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세 자녀를 둔 가정이 아이사랑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각종 행사시 출산지원책 홍보와 함께 '한 가정 세 자녀 갖기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옛말에 자녀 많은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자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자녀가 많은 가정은 인정이 살아 숨쉬고 공동체 의식이 저절로 싹트는 경향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많은 가족이 생활하다 보니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요즘은 복고풍 프로그램이 대세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우리 기성세대들은 1960~70년대의 다자녀가정을 매우 그리워할지도 모를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저출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미래 세대의 희망과 비전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출산의 중요성을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다출산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와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크나큰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출산장려 운동에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

도내 부부 절반 “이혼 고민 해봤다”

도내에 살고 있는 부부 가운데 절반은 ‘이혼’을 고려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3 정도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집안, 능력, 가풍 등을 꼽았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도내 일반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5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10월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결혼 후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1%는 ‘가끔 있다’, 11.7%는 ‘자주 있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가끔 고려한다’ 20.7%, ‘자주 고려한다’ 7.6%에 비해 여성의 45.5%는 ‘가끔 고려’, 12.9%는 ‘자주 고려’라고 응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부부갈등이 생겼을 경우 결혼 생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많았으나 ‘아니다’라는 응답도 25.5%에 달해 가족 갈등 시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각한 갈등에도 가족이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문제, 가족 실망, 이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자녀문제, 가족 실망,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아직 사회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경제적인 자립문제가 가족해체 시 우선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혼이라면 결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반드시 한다’ 15.2%, ‘되도록 할 것’ 33.6%, ‘되도

여성(58.4%)이 남성(28.3%)에 비해 이혼생각더 잦아
35.8% “결혼은 필수아니다” 가치관 변화…혼자가 편해
‘집안 분위기·능력·가풍’ 보고 배우자 선택

록 하지 않을 것’ 22%, ‘절대 하지 않을 것’ 13.8%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결혼을 필수로 보지 않고 선택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5.8%에 달해 단독가구의 증가, 만혼, 결혼기피 현상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9%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답했으며, ‘경제적 불안’ 14.7%, ‘일·학업에 몰두’ 14.2%, ‘현재 결혼제도의 불합리성’ 12.6%, ‘결혼생활에 자신이 없다’ 1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서는 남성(70.4%)에 비해 여성(41.1%)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자녀교육문제, 생활비 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는 주로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평소 대화정도에 대해선 ‘자주 한다’ 49.8%, ‘가끔 한다’ 39.7%, ‘거의 하지 않는다’ 10.5%로 조사돼 10쌍 가운데 1쌍은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의 주제는 자녀교육(64.7%)과 돈, 경제 관련(26.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부 갈등의 원인은 부모 부양이나 제사 보다 부부 당사자 간 갈등이나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집안 ▲능력 ▲가풍 등 3가지를 들었다. 특히 집안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분위기 좋은 집안에서 성장하고 경제적인 부분 역시 서로 비슷한 가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남성(41.1%)과 여성(25.4%) 모두 ‘자랑’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은 경제력(22.4%)과 직업(19.9%) 등 남성의 커리어에 중점을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남성은 직업(13.4%) 다음으로 외모(9.3%)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양문제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현재 가정에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계시거나 향후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하게 될 경우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해 33.5%가 ‘가족이 함께 살며 돌본다’고 응답했다. 가족이 함께 살며 부양한다는 것은 독립/분거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에서 육지부의 특성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돌봄의 공공서비스로 인한 요양보호제도 등의 홍보 확대에 따른 의사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 관련 가치관에 대해서는 공동육아(매우 긍정적 56.2%), 공동 가족 부양(매우 긍정적 42.7%),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매우 긍정적 26.6%, 긍정적 26.1%) 등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과 가족간호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직장을 포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역시 여성들에게 ‘돌봄’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뿌리 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생활과 관련해서는 남녀 평균 67.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53.6%, 개인연금 14.1%, 공무원연금 11.7%, 예·적금 11.7%, 퇴직금 2.4%, 부동산 2.1%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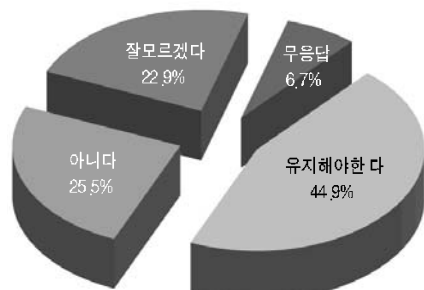
향후 노후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으로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싶다’가 전체 응답자의 66.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혼자, 시설, 자녀 순으로 조사돼 돌봄 가족이 생겼을 경우 돌본다는 의식과 향후 나의 노후생활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 상속과 관련, 54.1%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라고 답했으며, ‘가족과 사회환원’ 25.3%, ‘자녀에게만 상속’ 12.4%, ‘사회환원’ 2.9% 순으로 답했다.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비율(14.1%)이 남성(6.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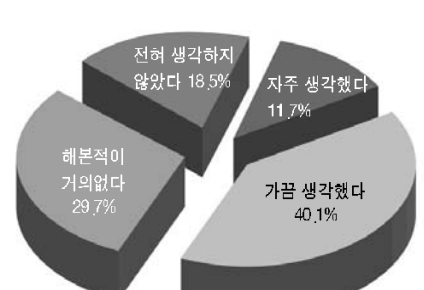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여성은 보육료 무상 지원을, 남성은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급을 우선 꼽았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여성 의식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의식 변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여성의 의식전환 수준으로 남성의 인식이 제고될 때 출산과 돌봄의 문제,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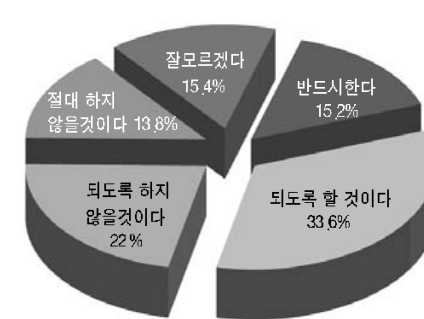
■ 혼인관계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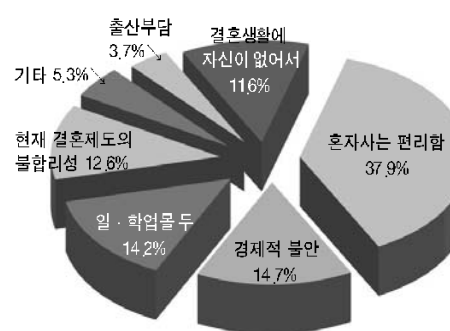
■ 이혼 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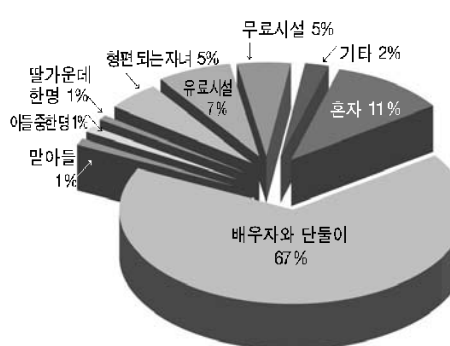
■ 결혼 의사



■ 결혼 기피 이유



■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혼인 추이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제주	4,022	3,708	3,574	3,379	3,325	3,382	3,576	3,495	3,445
전년대비	-9.1	-7.8	-3.6	-5.5	-1.6	1.7	5.7	-2.3	-1.4

제주특별자치도 이혼 추이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119,982	135,014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제주	1,763	1,721	1,962	2,177	1,777	1,663	1,613	1,561
전년대비	19.7	-2.4	14.0	11.0	-18.4	-6.4	-3.0	-3.2

사랑나눔 **푸드마켓**

“갯간 빈 푸드마켓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나눔의 기본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 도민들의 사랑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기부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기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부식류와 간식류, 식재료, 생활용품 등 무엇이든 기부가 가능하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기부해주신 물품은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원됩니다. 현금기부도 가능.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업체 및 기부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나눔을 키우는 행복한 세상



신산공원

문예회관

← 시청방면

제주동부경찰서



한국산업인력공단 1층
사랑나눔 푸드마켓

→ 화북방면

※ 후원금 기부

농협 301-0024-0336-61 / 제주은행 11-01-035561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문의 | 사랑나눔 푸드마켓 758-1377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702-3783 ~ 4